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주일학교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제1보좌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회장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제2보좌

청남



글렌 엘 페이스 장로
제1보좌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회장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제2보좌

상호부조회



버지니아 유 젠스 자매
제1보좌



메리 엘린 스마트 자매
회장



세리 엘 듀 자매
제2보좌

청녀



캐롤 비 토마스 자매
제1보좌



마가렛 디 네이롤드 자매
회장



샤론 지 라슨 자매
제2보좌

초등회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제1보좌



콜린 케이 맨러브 자매
회장



게일 엠 클레그 자매
제2보좌

교회 소식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교회 직원 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칠십인 회장단, 청남 회장단 및 주일학교 회장단의 변경

2001년 6월에 이미 발표된 칠십인 회장단 중 변경된 역원들이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 중 9명과 24명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 해임되었고, 3명이 새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지지 받았으며,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과 청남 회장단이 개편되었다.

찰스 디디에이 장로와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가 엘 알든 포터 장로와 말린 케이 젠스 장로의 후임자로서 칠십인 회장단의 새로운 회원으로 시시 받았다. 포터 장로는 해임되고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었으며, 젠스 장로는 유럽 중부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2001년 8월에 부름 받았다.

사무엘슨 장로는 본부 주일학교의 새로운 회장으로,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와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는 그의 보좌로 부름 받았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해 온 켄슨 장로와 그의 두 보좌였던 닐 엘 앤더슨 장로와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는 해임되었다.

칠십인 정원회의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는 새로운 본부 청남 회장으로, 글렌 엘 페이스 장로와 스펜서 제이 쿨디 장로는 그의 보좌로 부름 받았다. 본부 청남 회장으로 봉사해 온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는 태평양 제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8월에 부름 받았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그의 보좌들이었던

하몬드 장로와 존 엠 매드슨 장로와 함께 해임되었다.

포터 장로와 함께 존 케이 카맥 장로, 본 제이 패더스투온 장로,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 그리고 렉스 디 피네가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해임되고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또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들 중 4명이 총관리 역원의 부름에서 해임되었다. 해임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리처드 이 쿡 장로, 웨인 엠 헨콕 장로, 리처드 비 위스린 장로, 레이 에이치 우드 장로. □



테러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2001년 9월 14일 태버넬클에서 개최된 추모 모임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교회, 테러 공격 이후 평화와 위안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낸다

교회 지도자들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 이후 평화와 위안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5명의 말일성도들이 이번 테러 공격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럴린 메이어 보그 자매(48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산타 모니카 스테이크, 산타 모니카 제2와드 회원)는 어머니인 매리 엘리 스 윌스트롬 자매(75세; 유타 케이즈빌 동 스테이크, 케이즈빌 제17와드 회원)와 함께

세계 무역 센터에 충돌한 첫번째 비행기에 탑승했다. 두 사람은 보그 자매의 쌍둥이 자매들을 대학에 데려다주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이반 루이스 키피오 바우티스타 형제(24세; 뉴욕 리치먼드 힐 지방부, 리치먼드 힐 제3지부 회원)는 테러 공격이 일어났을 때 세계 무역 센터 107층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9월 11일이 생일이었던 그는 원

래 그 날 하루를 쉬 계획이었으나 교대하기로 되어 있던 동료 직원 대신 연장 근무를 했다.

브래디 하웰 형제(26세; 버지니아 마운트 버논 스테이크, 크리스탈시티 와드 회원)와 론다 라스뮤센 자매(44세)는 워싱턴 디시의 펜타곤 테러 공격에서 사망했다. 하웰 형제는 미해군을 위해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라스뮤센 자매는 육군성에서 예산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다. 26년간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그녀의 남편은 해를 입지 않았다.

테러 공격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대관장은 즉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의 분별 없는 폭력 행위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이 부상 당했거나, 그들을 잃어 버리게 된 사람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저희는 이 사악한 공격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참사에 대처하는 부시 대통령과 그 보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세주의 평안과 사랑으로 위안을 받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9월 11일 저녁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미 계획되었으나 추모 모임으로 바뀐 물론 태버넬클 합창단 연주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암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무겁게 드리운 공포와 분노를 꿰뚫고 하나님의 아들의 근엄하고 훌륭한 모습이 빛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레리 킹 생방송 프로그램과,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온국민 기도와 추모의 날인 9월 14일에 솔트레이크 태버넬클에서 개최된 추모 모임에서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힝클리 대관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

습하지”(이사야 2:4 참조) 아니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했다. 이 추모 모임에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뿐 아니라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합창단원들도 참석했다. 이 추모 모임은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 집회소들에 방송되었다.

9월 20일, 힐클리 대관장과 26명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모임을 가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이처럼 강하게 느껴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지혜와 힘과 명철한 판단의 축복을 받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시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힐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이 귀하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하에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대관장단의 요청으로, 미국의 전역에 있는 교회 단위 조직들은 9월 16일 일요일에 특별 추모 모임을 개최했다.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 버린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봉사의 손길로 보살폈다. 많은 회원들은 뉴욕과 여러 비행장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가정과 집회소로 맞아 들였다.

교회가 미국 적십자사에 기부한 인도주의적 구호 기금은 주로 수색과 구조 작업, 비상 식량과 숙소, 그리고 다른 필요 사항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적십자사의 솔트레이크시티 지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여행자들이 식품과 숙소를 얻도록 하는 데 기금의 일부를 사용했다. 또한 뉴욕 시의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추가 지원을 했다. 10월 9일 대관장단은 담요, 위생 키트, 의료 물품, 그리고 신생아 키트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보내는 것을 승인했다. □



홈 페이지(www.mormon.org)는 방문자들에게 교회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새로운 웹 사이트를 통해 복음을 나눔

교회는 복음의 전파를 돕는 새로운 자원을 마련했다. 사람들은 공식적인 웹 사이트 www.mormon.org에서 완전한 익명으로 검색함으로써 복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10월 5일 발표된 이 사이트는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언급한 것이다. 옥스 장로는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새로운 방법은 우리가 19세기에 소책자를 발행하고, 20세기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를 사용했던 만큼이나 굉장한 것입니다...교회 회원들은 사이트의 도움으로 친구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거나 이 사이트를 그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Mormon.org 웹 사이트에 대한 발표가 있는 후 3일 동안 사이트 방문자 수는 93,433명이었고, 물문경 요청자의 수는 151명이었으며, 선교사 방문을 요청한 수는 36명이었다. 이용자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태평양, 카리비안 해, 유럽, 중동, 북미, 남미, 그리고 중미 사람들이었다.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Mormon.org는 교회의 기본 원리들을 단순히 간단하고 용어로 설명해 준다. 내용은 네

개의 주요 항목, 즉 교회, 가족,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인생의 목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항목에 링크하면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계속 링크하면 관련된 주제와 교회 비디오의 음성 및 화면 자료, 대관장단 일원이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선교사와의 모임 또는 교회 출판물이나 비디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집회소 약도(현재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사용 중임)를 사용하여 그들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집회소를 찾을 수 있다.

Mormon.org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자료에는 사회 문제나 신학, 교회 정책에 관련한 빈번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부모의 역할 및 가족 관계, 의사 소통에 관한 참고 자료, 이용자들이 복음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용어 탐색 기능 등이 있다.

교회 회원들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웹 사이트 페이지나 복음을 주제로 한 전자 인사 카드를 무료로 보낼 수 있다.

Mormon.org는 현재 영어로만 이용 가능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이트를 결국 많은 언어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